

**한국산 닭고기 일본으로 본격 수출
마니커 닭고기 9일 선적**

구제역 파동으로 침체일로를 걸어왔던 축산물 수출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주)마니커(대표 한형석)는 지난 5일 일본 4대 종합상사중의 하나인 니쇼이와이 규슈지사와 국내산 닭고기 장기 수출계약에 잠정 합의하고 내달 10일 초도 물량 10t을 내보내기로 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마니커 닭고기는 통다리살, 봉, 윙, 안심, 가슴살 등 5개 품목으로 전량 마니커 브랜드를 부착하고 판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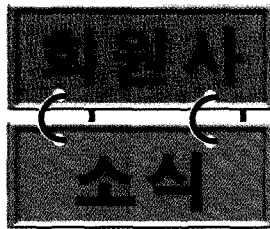
수출물량은 금년중 15만 달러규모를 판매하게 되며 2002년에는 최소 200만 달러이상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마니커는 대 일본 닭고기 수출계약에 있어 현재 중국산 수출단가 보다 70%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 이를 이끌어냄으로써 앞으로 국내산 닭고기 수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물론 국내산 닭고기 품질의 우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시장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연간 55만t 규모의 닭고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2만t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신선육으로 수입해오고 있었으나 품질상의 이유로 우리나라 닭고기를 주목해 왔었다.

한편 (주)마니커는 이번 수출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일본측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실무접촉을 벌여왔으며 지난 8월초에 이미 수출물량 사전확보를 위해 농기별로 수출용 육계사육에 착수했었다.

**(주)마니커 도계·부화설비 증설
상반기 70억 투입 사업장 설비 보강**



국내 최초의 계육브랜드 (주)마니커는 지난 8월 21일 동사의 동두천공장 증·개축 준공식을 가진데 이어 8월 27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백암 부화장 증설 준공식을 가졌다.

(주)마니커 동두천 공장의 경우 총 공사비 20억원을 투입, 지난 3월에 착공하여 5개월동안 공장사육을 개척하는 동시에 주요 생산설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였다.

이는 동두천공장이 국제규격에 맞는 HACCP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염지·포장등 설비를 확대 보강함으로써 단순 도계장의 개념을 넘어 종합식품가공공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백암부화장의 경우 총 21억여원을 투입하여 첨단 부화설비를 갖춘 새로운 부화장으로 탄생시켰으며 생산량도 종전 주당 15만수의 규모에서 70만수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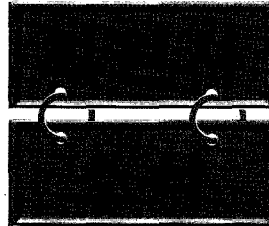
(주)마니커는 금년 상반기 중 총 70여억원을 투

입, 각 사업장 설비 확충 및 현대화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종합식품가공회사로서의 발전기반을 더욱 강화시키는 동시에 생산설비 현대화로 원가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체리부로 식품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종합 식품 회사로 발돋움**

(주)체리부로식품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원종계에 서부터 육가공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계열화사업의 완성을 실현하는 한편 내년에는 주식상장을 통한 투명 경영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주)체리부로식품(대표 김인식)은 지난 7일 충북 진천 본사에서 개최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육가공제품 브랜드 델리퀸을 선보이고 육가공 제품의 본격 출시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지난 3년동안 판매해 오고 있는 스모크 치킨을 비롯, 우선적으로 4가지 제품을 출시하게 되며 오는 10월까지 10여종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 91년 창립, 93년에 진천도계장을 준공한 체리부로는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부분육 가공공장, 장성 구미의 도계장 및 음성·천안 부화장, 보령·음성중계장, 아산·보령 원종계장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10개 사업장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서 전국적인 육계계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완성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장준공 첫해 월50만수에 그쳤던 작업량도 지난해에는 월 2백만수로 4배가 증가, 연간 2천만수 이상을 생산해 업계 3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4월에는 자체브랜드 생산 작업량이 1억수에 달하기도 했다.

또한 첫해 24억원의 매출이 금년에는 6백50억원,

23명의 직원이 3백30명으로 각각 증가했으며 공장규모도 진천공장 준공시 5천6백평 규모에 5백60평 단일공장이었던 것이 지금은 10개 사업장 모두 합쳐 부지 8만5천평, 건평 1만5천평의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만에 매출 27배, 직원 14배, 부지 15배, 건물은 27배로 각각 증가한 것이다.

김경화 진천군수를 비롯한 군기관 관계자와 계열업체 대표, 협력농가 등 6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김인식 사장은 『오늘이 있기까지는 주변분들의 도움과 함께 무엇보다 동반자인 협력농가들의 협조와 노력이 뒤따랐다』며 『앞으로는 대일닭고기 수출을 비롯, 투명경영 체제 확보를 통해 희망찬 육계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C